

“일자리는 기업 몫”...청년 고용 당부

문 대통령, 6대기업 총수 오찬 3년간 일자리 18만개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대기업 총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인재는 기업의 가장 확실한 투자처”라며 청년 고용과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 구현모 KT 대표 등 정부의 민관합동 일자리 창출사업인 ‘청년희망온(ON)’에 참여한 6대 기업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영토가 좁고 천연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잘 교육 받은 우수한 인재와 풍부한 인적자원 덕분”이라며 “삼성은 ‘인재 제일’이라는 창업주의 뜻을 이어 최고 능력을 갖춘 삼성인을 배출해왔고, 현대자동차는 ‘H 모빌리티클래스’ 같은 교육기회를 마련했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희망온 프로젝트는 청년과 기업의 상생 전략이다. 6대 기업은 앞으로 3년간 청년일자리를 18만여개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을 해줬다”며 “훌륭한 결단을 내려주시는 기업인들께 직접 감사드리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제도 교육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했다”며 “그러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날처럼 눈부시게 빠른 디지털 전환과 기술 발전 속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 훈련 역시 기업이 더 잘할 수 있다”며 “민관이 다각도로 협업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은 세계 어느 누구보다 디지털을 잘 활용하며 열정과 절실함을 갖고 있다. 기회만 만들어 주면 글로벌 인재로 발전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제대로 주저앉지 않도록 기업인 여러분이 든든한 힘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기업 총수들과 1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민관협력 기초아래 당초 계획보다 큰 폭으로 고용을 확대한 대기업들의 선도적 역할을 두고 ‘양질의 일자리에 목마른 청년들에게 단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연말에 다시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남은 임기 동안 대기업들과 ‘동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진보진영에서는 문 대통령의 ‘재벌 개혁’이 임기말로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코로나19라는 국난이 닥친 만큼 대기업과도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으로 보인다.

대기업들의 협력 없이는 경제성장률이나 고용률 등 거시 경제지표의 개선 추세를 이어가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결국 문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 국정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라도 대기업과의 우호적 관계유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국힘, 尹 지지율 추락에 위기감 고조

선대위 인적쇄신론 제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빨간불’이 켜지면서 당에 비상이 걸렸다.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등과 관련해서는 김씨가 전날 공개적인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비롯한 ‘당 내홍’을 연내에 조기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지율 하락 흐름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선대위 6본부장 일괄 사퇴’와 같은 인적쇄신을 비롯해 사실상 해체에 가까운 선대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27일 오전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는 “비상상황” 언급까지 나오며 위기감이 여실히 드러났다. 윤 후보는 회의 발언에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비상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라면서 “모든 당원, 중앙·지역 선대위 관계자 모두 정권교체 의지를 누구보다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 국민 지지를 얻어내고 이끌어내는 역할을 누군가의 지시를 기다리려 안 되고 스스로 찾아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도 국민이 기대하는 정권교체 여망을 또다시 수용하지 못하면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건 정치적으로 아무 미래를 보지 못할 것”이라며 “실패하고 난 다음 후회해야 아무 의미 없다. 정치라는 게 후

회하는 날이 바로 끝나는 날이라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70여일간 선대위와 당이 ‘혼연일체’가 돼 달려라”고 당부했다.

당에서는 힘 위기의 타개책으로 ‘매머드 선대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몸집만 커진 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대위 규모를 축소하고 핵심 기능 위주로 조정해 ‘실무형’으로 바꾸자는 것으로, ‘항공모함’이 돼 버린 선대위에 ‘기동행기’를 띄우겠다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처방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통해 윤 후보가 위기 국면에서 ‘쇄신의 첫발’을 때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날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한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는 ‘갑표 요력’ 의혹에 대한 불과함부로 ‘선대위 개편 카드’로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일각에선 ‘선대위 6본부장 일괄 사퇴’를 비롯한 인적쇄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준석 대표도 최근 ‘선대위 6본부장’ 체제를 비판한 바 있는 만큼, 이런 조치를 통해 이 대표가 다시 선대위에 복귀할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윤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선대위 전면 개편’에 선을 그으면서, 총괄상황본부에 힘을 실어 후보의 정책·일정·메시지 창구를 일원화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호남 정치권 인사 참여 국힘 새시대위원회 활동 주목

국민의힘 선대위의 한 축인 새시대준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 주목된다. 특히 새시대위원회는 김동철, 박주선, 송기석 전 의원 등 호남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상당수 참여하고 있는데다 윤석열 후보 직속 조직이라는 점에서 대선 이후 정계개편까지 주도하지 않는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새시대준비위에서 지역화합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동철 전 의원은 27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국회 출입 광주시역 기자들과의 차담회를 갖고 “새시대준비위는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고 정권교체를 바라는 민심을 담아내는 그릇이자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며 “당과 선대위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고 시대적 정권교체 열망을 모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와 호남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 김 본부장은 “윤석열 후보가 걸어온 원칙, 공정, 상식의

길은 광주 정신과 부합한다고 본다”며 “특히,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심판을 외치지않고 국민의힘 전신 세력들의 호남 차별과 5·18 민주화운동 병행 등에 대한 비판적 입장도 함께 보수 정당의 개혁과 혁신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권교체 가능성에 대해 김 본부장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들쭉날쭉하지만 정권교체 여론은 정권 유지론보다 10% 이상 유지되고 있다”며 “최근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여러가지 해프닝이 있었지만 대선 결과는 민심의 저변에 자리잡은 정권교체 흐름을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본부장은 “국민의힘은 전면적 대쇄신을 통해 전신 정당들이 보였던 과거 행태에 반성하고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내년 대선 이후, 어떠한 형태로든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여론을 낚았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KSOI, 李 37.6% 尹 35.8%...리얼미터, 尹 40.4% 李 39.7%

다자대결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잇따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지난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 결과 이 후보는 전주(40.3%)보다 2.7%포인트 하락한 37.6%, 윤 후보는 전주(37.4%)보다 1.6%포인트 떨어진 35.8%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2.9%포인트에서 1.8%포인트로 줄었다. 오차범위내 접전이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9~24일

연세간 전국 18세 이상 3090명을 상대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묻은 결과, 윤 후보는 전주보다 4.0%포인트 떨어진 40.4%를 기록했다. 이 후보 지지율은 전주보다 1.7%포인트 오른 39.7%로 나타났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6.4%포인트)보다 5.7%포인트 감소한 0.7%포인트를 기록하며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이번 KSOI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리얼미터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8%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8.1%, 7.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이재명-이낙연 투톱 비전위 출범

민주당 ‘원팀 선대위’ 완성 호남·중도 확장 고지 선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7일 이낙연 전 대표를 등에 업고 차기 정부 국정과제를 설계할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비전위)’의 막을 올렸다. 이재명-이낙연 투톱 체제인 비전위 출범으로 ‘원팀 선대위’가 최종 퍼즐을 맞추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의 등판으로 호남은 물론 중도 진영의 확장성 측면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전위 출범식에서

이재명 후보는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낼 시기라는 점에서 이 전 대표의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이 후보는 “내년 3월 9일 대선은 과거로 되돌릴 것인가, 미래 희망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분기점으로, 역사가 되행하지 않도록 하는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위원장과 공동 위원장으로서 국가비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민 신임을 다시 얻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은 더 낮게, 더 깊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더 확실하게 혁신하면서, 더 따뜻하게 국민을 포용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의 위기는 이전보다

더 심각하다”며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국민의 삶을 어떻게 지켜드릴 것인지,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발전시킬 것인지 등을 다듬어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설훈 홍영표 박광운 의원 등 ‘이낙연 캠프’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해 실질적인 원팀 완성을 알렸다. 이 후보 측에서는 최측근인 조정식 정성호 의원이 비전위 수석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비전위는 향후 ▲민중 ▲혁신 ▲포용 ▲평화 ▲미래 등 5대 분야별 의제를 선정해 이 후보의 정책과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내년 1월 5일 호남의 심장부인 광주를 시작으로 ‘비전 투어’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호남에 뿌리를 둔 이 전 대표는 전통 지지층 결속을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h2>상가매매(상무지구)</h2> | <h2>장성 토지(매매 분양)</h2> | <h2>경매교육 [특수전문반]</h2> <p>기초반,중급반</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 시세 -> 9억 급매가 -> 5억8천 (보 3천, 월 300만, 용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합,빠,유흥,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010-6670-9800</p> |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010-6670-9800</p> | <p>특수경매전문(유치권, 법지, 지분) ① 기초반, 실전 (기초이론,실전) ② 중급반, 실전(중급이론,실전) ③ 고급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엔피엘전문) ④ 전문반 모집(직업가능,수익가능) ·전문반무료제공- 책상, 컴퓨터 제공,매주1회물건스터디</p> <table border="1"> <tr> <td>광주</td> <td>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감정가 8억3천 -> 3억7천 (12/21)</td> </tr> <tr> <td></td> <td>남구 월산동(주택)▶감정가 3억5천 -> 2억 (12/21)</td> </tr> <tr> <td></td> <td>서구 쌍촌동(아파트)▶감정가 2억5천 -> 1억1천 (12/21)</td> </tr> <tr> <td></td> <td>북구 두암동(상가건물)▶감정가 4억2천 -> 2억9천 (12/29)</td> </tr> <tr> <td></td> <td>광산구 삼거동(임야)▶감정가 3억9천 -> 2억7천 (12/29)</td> </tr> <tr> <td></td> <td>서구 농성동(근린주택)▶감정가 8억1천 -> 4억5천 (1/12)</td> </tr> <tr> <td></td> <td>동구 계림동(근린주택)▶감정가 6억 -> 4억2천 (1/12)</td> </tr> <tr> <td>전남</td> <td>목포시 상동(잡종지)▶ 감정가19억 -> 8억5천 (12/13)</td> </tr> <tr> <td></td> <td>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 7천6백 (12/16)</td> </tr> <tr> <td></td> <td>무안군 일로읍(농지)▶ 감정가 3억8천 -> 1억3천 (12/20)</td> </tr> <tr> <td></td> <td>장성군 황룡면(주택)▶ 감정가 4억1천 -> 2억9천 (1/5)</td> </tr> <tr> <td>시외</td> <td>전북 군산시(근린상가)▶감정가 2억7천 -> 6천5백(12/27)</td> </tr> <tr> <td></td> <td>경남 창원시(근린상가)▶감정가 40억 -> 13억 (1/13)</td> </tr> </table> <p>062-382-5500</p> | 광주 |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감정가 8억3천 -> 3억7천 (12/21) | | 남구 월산동(주택)▶감정가 3억5천 -> 2억 (12/21) | | 서구 쌍촌동(아파트)▶감정가 2억5천 -> 1억1천 (12/21) | | 북구 두암동(상가건물)▶감정가 4억2천 -> 2억9천 (12/29) | | 광산구 삼거동(임야)▶감정가 3억9천 -> 2억7천 (12/29) | | 서구 농성동(근린주택)▶감정가 8억1천 -> 4억5천 (1/12) | | 동구 계림동(근린주택)▶감정가 6억 -> 4억2천 (1/12) | 전남 | 목포시 상동(잡종지)▶ 감정가19억 -> 8억5천 (12/13) | |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 7천6백 (12/16) | | 무안군 일로읍(농지)▶ 감정가 3억8천 -> 1억3천 (12/20) | | 장성군 황룡면(주택)▶ 감정가 4억1천 -> 2억9천 (1/5) | 시외 | 전북 군산시(근린상가)▶감정가 2억7천 -> 6천5백(12/27) | | 경남 창원시(근린상가)▶감정가 40억 -> 13억 (1/13) |
| 광주 |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감정가 8억3천 -> 3억7천 (12/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구 월산동(주택)▶감정가 3억5천 -> 2억 (12/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구 쌍촌동(아파트)▶감정가 2억5천 -> 1억1천 (12/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북구 두암동(상가건물)▶감정가 4억2천 -> 2억9천 (12/2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광산구 삼거동(임야)▶감정가 3억9천 -> 2억7천 (12/2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구 농성동(근린주택)▶감정가 8억1천 -> 4억5천 (1/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구 계림동(근린주택)▶감정가 6억 -> 4억2천 (1/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남 | 목포시 상동(잡종지)▶ 감정가19억 -> 8억5천 (12/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 7천6백 (12/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무안군 일로읍(농지)▶ 감정가 3억8천 -> 1억3천 (12/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성군 황룡면(주택)▶ 감정가 4억1천 -> 2억9천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외 | 전북 군산시(근린상가)▶감정가 2억7천 -> 6천5백(12/2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남 창원시(근린상가)▶감정가 40억 -> 13억 (1/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